

研究論文

나이의 일상예문화 - 나뉘는 나이, 나누는 나이 -

이 하 배*

I. 들어가는 말	IV. 나오는 말
II. 일상예문화와 나이	<참고문헌>
III. 경계선(境界線)의 경계(警戒)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나이는 삶의 시간적 양을 일 년을 단위로 가리키는 수치다. 우리사회에서는 같은 해에 태어나면 ‘산 시간’에서 차이가 있어도 같은 나이다. 나이는 산 시간을 비교적 정확히 말해주기도 하지만 ‘살 시간’도 대강은 가늠하게 한다. 과거에 산 시간의 양과 앞으로 살 시간이 양에서 나이에 대한 기대나 나이의 가치 등이 파생된다.

나이를 ‘자연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적 나이는 사람이나 생물이 태어나서 살아온 햇수다. 그리고 문화나 관습, 도덕이나 법,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 사회적 제 환경과 연관된 ‘나이 효과’가 얘기될 때, 사회적 나이가 얘기될 수 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얼굴 주름의 양이 다르다면, 그 차이는 보통 물질적 정신적 삶의 내용과 방식의 차이에 연유한다. 건강을 말해주는 ‘실제’ 나이는 한 사람의 ‘사회적 크기’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연구는 사회적 나이를 묻는다. 일상의 예문화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예 개념 내지는 예 이름에 연

결되어 맺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관계들의 이론적 실천적 전체 작용맥락’으로) 정의될 수 있을 때, 일상예문화 범주 속에서의 나이는 사회적 나이의 문제다.

우리사회는 나이에 매우 민감하다. 나이는 우리의 만남에 강하게 간여한다. 다양한 종류와 방법의 ‘사람만남’들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삶이 나이를 민감하게 간여할수록, 나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많아진다.²⁾ 우리사회에서 나이에 민감하고 그 원인이나 효과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철학 내외의 인문학에서 나이에 대한 이런 방향으로의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아직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거칠게 말해, 서양에서는 나이의 상하 내지 장유유서의 논리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묻어지지 않는데 서양이론을 들여오는 쪽도 서양에서처럼 이 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이질서를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동양전통과 이런 전통의 내용과 방법에 거리를 별로 안 두어온 동양(철)학도 구체적인 현실 분석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나이가 일상 만남의 내용과 방식을 ‘참견’하는 문제를 무엇보다 ‘상하’와 ‘만남’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 자료는 주로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일상경험이나 대중매체들에 오른 ‘일상의식(Alltagsbewusstsein)’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사회에서 나이를 챙기고 나이에 민감한 방식들과 그 전체나 효과들을 드러냄으로써 나이에 좀 더 무디어지고 나이를 초월하여 보다 열리고 편안하고 민주적인 사람만남의 길을 추구한다는 데에서 이 연구의 목적이 찾아진다.

1) 이하배, 「權力 속의 禮 혹은 예 속의 권력: 일상 ‘예문화’와 ‘겉치레’적 인간관계, 『동양철학연구』, 38집(2004), 209쪽.

2) 참고: “한국의 일상 문화에 대한 디큐멘터리 형식의 작업 차 꽤 많은 한국 거주 외국인을 인터뷰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한국인이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집요하리만큼 궁금해 하던 걸 기이하게 받아들이며 지적하더군요. 특히, 교환 학생 차 미국에 온 한국인 친구와 미국에서 꽤 친하게 지냈는데 한국에 자기가 교환 학생으로 와서 다시 만나면서 나이 관계가 새삼스럽게 결부되면서 관계가 변질되었던 경험에 대해 토로하던 한 분의 얘기가 기억나요”(인터뷰). 아래에서 인용한 인터넷 댓글은 모두 출처를 생략하고 ‘(인터넷)’으로만 표기한다. 출처가 쉽게 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모두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식적으로 아는 일상이기 때문이다. 맞춤법에 약간의 수정은 가하기도 했다.

* 한국항공대학교 강사, 철학 전공(hhbblll@hanmail.net).

II. 일상예문화와 나이

1. “예—사회화”와 나이의 예

유교의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관심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좋은 삶’은 사회적 ‘크기’와 역할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제자리에 잘 머물 줄 알면서’ 싸우지 않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예—사회화”(禮—羣), 즉 ‘예(禮)적으로 함께 하는 사회적 삶의 조직·실천’의 개념이다. 선진 제자의 사상을 총 정리하면서 유교를 체계화하는 순자는 ‘함께 하는 삶’을 개념적으로 표현하여 “군(羣)”으로 불렀다.³⁾ “군(羣)” 개념은 순자에게서 이 글자의 위 부분(“君”)과 아랫부분(“羊”)을 선별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에 따라 세 의미를 갖는다. 1. “(서로서로) 무리 짓기”(羣 1)⁴⁾; 2. “양(羊)들 위에 앉아 있는 군(君)이 ‘상’으로서 자기의 아래에 서있는 ‘양’들을 무리 짓게 하고 사회적 삶을 계획·영위하게 하는 통치행위(羣 2)⁵⁾; 3. 무리 지어 지는 ‘아래’ 양들(羣 3).⁶⁾ 아래 양들을 무리 짓게 하고 그들 삶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면서 ‘군(羣) 2’하는 “군(君),” 군주는 ‘군 1’이라는 함께 하는 사회적 삶의 전체 과정에서 “위”로 “떠—올라” 그것의 행동 주체로 되고 아래 양 무리들인 ‘군 3’은 그의 객체로 된다. ‘군 2’와 ‘군 3’에서 함께 하는 삶이 수직화 되는 계기들이 잘 표현되고 있다.

하옥(Haug)은 이 ‘함께 하는 삶’을 “Vergesellschaftung”(뉘어게셀샤프퉁: “사회화”)으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하옥의 “뉘어게셀샤프퉁” 개념이 모든 함께 하는 사회적 삶의 종류를 포용할 수 있는 유개념임에 비해, 순자의 “군(羣)” 개념은 뚜렷이 “이데올로기적” 사회화로 한정된다. 하옥의 개념 “사회화”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상호 간의 사회적 (삶의: 필자) 제 관계들의 구성과 실천”⁷⁾ 혹은 “사회적 삶의 실천적 제 인간관계 총합”⁸⁾으로 정의되는데, 이 개념은

3) 『荀子』 富國, “人之生, 不能無羣, 羣而無分則爭, 爭則亂, 亂則窮矣. 故無分者, 人之大害也, 有分者, 天下之本利也, 而人君者, 所以管分之樞要也”
 4) 『荀子』 王制, “力不若牛, 走不若馬, 而牛馬爲用, 何也. 曰, 人能羣, 彼不能羣也”
 5) 『荀子』 王制, “君者, 善羣也. 羣道當, 則萬物皆得其宜, 六畜皆得其長, 羣生皆得其命.”
 6) 『荀子』 非十二子, “古之所謂仕士者, 厚敦者也, 合羣者也, 樂富貴者也, 樂分施者也.”
 7) Haug, Wolfgang F., “Ideologische Mächte und die antagonistische Reklamation des Gemeinwesens,

모든 ‘삶의 실천 행위들’을 포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화”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순자의 사회화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방식으로의 사회적 ‘위(上)’가 그 사회적 ‘아래(下)’의 물질적, 정신적 삶을 ‘조화’ 속에서 내지는 조화를 수단으로 규정하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나아가 이상으로까지 삼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사회화의 핵심적 측면은 ‘모두 다같이, 그러나 분리 속에서’(合而分) 내지는 ‘분리 속에서, 그러나 모두 다같이’(分而合)이다. 이러한 분리는 수직적 분리 혹은 “수직적 차이(차이 2)”이지, 수평적 분리 내지는 “수평적 차이(차이 1)”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분리’와 ‘다 같이’는 나중에 등장할 개념 쌍인 ‘외적 크기’와 ‘내적 크기’로 각각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 문제로의 이론적 접근의 출발점과 도달점의 윤곽이 드러난다.⁹⁾ 순자적 ‘분이합’의 이데올로기적 사회화가 순자, 유교, 나아가 기타 동양 사상에만 한정되는 사회화 형식일까?¹⁰⁾ “상이나 하로서의 남을 하나 상으로서의 내가 배려할 줄 알면서 상하가 올바르게 각각의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수직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Zur Weiterentwicklung der Umrissse,” W. F. Haug, *Pluraler Marxismus*, Bd. II(Berlin(W), 1987), p. 46.

8) Haug, Wolfgang F., “Der Begriff der Selbstverwaltung im Marxismus und die Aufgaben der Intellektuellen,” W. F. Haug, *Pluraler Marxismus*, Bd. I(Berlin(W), 1985), p. 236.
 9) Berlin의 자유 대학(F.U.)에서 1978년부터 하옥 교수를 중심으로 사회 운동의 새로운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이 대두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론적으로 특히 “경제 (결정) 주의와의 단절”과 이데올로기 문제의 非二次性を 내걸고 출발한 PIT(Projekt Ideologie-Theorie)는 “Argument 출판사”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국제적, 학제적으로 최근까지 많은 이론적 업적을 남겼다. Haug은 이데올로기 문제를 의식(Bewußtsein) 차원으로 축소, 환원하여 설명하는 경향들에 반대하고, Marx, Engels나 그들을 해석하는 Gramsci(“문화 사회,” “헤게모니” 등 참조)나 Althusser(“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 “(호명된) 주체” 등 참조)의 유물론적 해석 전통을 비판적으로 살리면서 이데올로기 카테고리들 보다 포괄적이고 분석력 있는 “이데올로기적(임)”이라는 카테고리들 대체시키면서 이를 “상에 의한 사회화”(Haug, *ibid*(1987), p. 46)라 이해한다. Haug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J. Koivisto와 V. Pietilä가 “Haug's Theorie des Ideologischen im Vergleich”(1993)에서 다른 이론들과 비교하면서 짧게 잘 요약했다. 그람시와 알튀세에 대해서는 Hrsg. v. K. Bochmann und W. F. Haug, *A. Gramsci: Gefängnishefte* (Hamburg-Berlin 1991ff.); Althusser, L., *Ideologie und ideologische Staatsapparate*(Hamburg: Berlin(W), 1977) 참조.
 10) 앞의 문단부터 여기까지는 이하배, 「우리 속담에 나타난 性差別的 社會化: 儒敎的 社會化와의 관련 속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1권 제1호(2001), 186-187쪽 참고.

영위해야 한다”는 논리가 ‘예—사회화’ 내지는 ‘예군(禮羣)’의 본래적 관심이다. 만남에서 남을 잘 배려·존중하면서 혹은 배려·존중하지만 혹은 배려·존중하기에 상하가 ‘각각 제자리’를 지키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논리의 요지다. 여기에 ‘수직 속의 배려’ 나아가 ‘수직을 배려하기’의 관념이 들어 있다.

나이의 예(법)에 관련하여 공자는 어리면/젊으면 공손해야 한다고 했고¹¹⁾ 맹자는 “장유유서”를 말하고¹²⁾ 세상에서 통하는 가치에 ‘관작/지위’와 ‘나이’와 ‘덕’이 있다고(“爵一齒一德一”) 했으며,¹³⁾ 『예기』는 “장유지도,”¹⁴⁾ “장유지서,”¹⁵⁾ “장유지절”을¹⁶⁾ 말한다. 유교사회의 전통에서 나이에 대한 질문은 무엇보다 ‘장유유서’와 ‘경로’ 혹은 ‘경장’의 사상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유교의 수직주의적 예—사회화 논리에서 중심을 이루는 개념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예는 만남의 한 방법이다. 혹은 예는 만남의 여과 장치(필터)다. 사회적으로 함께 하는 삶에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이 장유 혹은 노소로서 만날 때, ‘나이 예’는 만나고 만나지는 혹은 대하고 대해지는 내용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만남의 주관적·객관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채워지는 측면이 있어도, 나이 예는, 무엇보다, 전자(長, 老)가 공간적으로 ‘위,’ ‘앞’ 혹은 시간적으로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후자가 ‘아래,’ ‘뒤’ 혹은 ‘나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¹⁷⁾

11) 『論語』, 憲問, “原壤夷俟。子曰, 幼而不孫弟, 長而無述焉, 老而不死, 是爲賊。以杖叩其脛。”
 12) 『孟子』, 滕文公上, “后稷教民稼穡, 樹藝五穀, 五穀熟而民人育。人之有道也。飽食煖衣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荀子』, 君子, “親疏有分, 則施行而不悖, 長幼有序, 則事業捷成而有所休”
 13) 『孟子』, 公孫丑下, “天下有達尊三, 爵一, 齒一, 德一。朝廷莫如爵, 鄉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惡得有其一以慢其二哉”
 14) 『禮記』, 文王世子, “抗世子法於伯禽, 欲令成王之知父子君臣長幼之道也。”
 15) 『禮記』, 文王世子, “明父子之義, 長幼之序”; 『禮記』, 樂記, “合父子之親, 明長幼之序, 以敬四海之內”; 『禮記』, 樂記, “此所以祭先王之廟也, 所以獻酬酢也, 所以官序貴賤各得其宜也, 所以示後世有尊卑長幼之序也”; 『禮記』, 祭統, “夫祭有十倫焉。見事鬼神之道焉, 見君臣之義焉, 見父子之倫焉, 見貴賤之等焉, 親疎之殺焉, 見爵貴之施焉, 見夫婦之別焉, 見政事之均焉, 見長幼之序焉, 見上下之際焉。此之謂十倫。”
 16) 『禮記』, 文王世子, “然而衆知長幼之節矣”
 17) 『禮記』, 曲禮上, “夫爲人子者, 出必告, 反必面, 所遊必有常, 所習必有業。恒言不稱老。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則肩隨之。羣居五人, 則長者必異席”; 『禮記』, 少儀, “尊長於己踰等, 不敢問其年, 燕見不將命。遇於道, 見則面, 不請所之”; 『禮記』, 祭義, “昔者有虞氏貴德而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나이에 붙는 동사 혹은 술어들은 -들다, -먹다, -어리다, -올리다, -내리다, -감추다, -드러내다, -값 하다, -셈하다, -묻다, -추측하다, -에 관심 갖다, -잇다, -말다, -적다 등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나이의 크기와 그 크기의 계산이나 관리 등에 관계되는 술어다. 또 일상 언어에서 “너는 ‘위아래’도 없냐?”; “당신 나이 몇이야?”; “나이라도 어린 게 덤빈다”; “조그만 한 게 까불어!”; “나이 값이나 좀 해라!”; “나이 덕이나 보자!”; “반말 하지 마!” 등의 표현은 ‘나이의 예’와 직접 연결된다. 나이의 예는 나와 남의 만남에서 나와 남이 나와 남의 나이(값)를 일정한 방식으로 감안하는 만남의 방법/규범이다. 우리는 예—사회화와 관련하여 나이 예에 대한 일상의 의식과 실천들에 대해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더’ 물을 필요가 있다.

2. 나이의 힘

예는 ‘유능’하고 ‘유력’하다. 예는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실, 사람 만남의 행동을 규정하기 위해 생긴 예는 만나는 자와 만나지는 자의 행동을 규정하는 힘이 있다. 유교적 전통을 하나의 방식으로 수입하고 형성해온 우리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남 사이의 나이 차이, 나이 나눔, 나이 나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혹은 나이 나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나이를 민감하게 나눈다. 나이로 만나는 사회화 질서에서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민감’이 부담으로 따라다닌다. 우리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사람들은 자신과 만남상대의 나이크기 간의 상대적 차이에 민감하게 간여하고 반응한다. 이점은—나이의 예가 이론적 전통과 실천적 현실 사이에서 차이를 보일지라도—무엇보다, 나이를 ‘많이’ 감안하는 만남인 나이의 예가 우리의 유교적 전통과 관습인 것과 한국어에 발달한 ‘존비어’ 체계가 이를 강화하는 점 등에 힘입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나이의 일상예문화 속에서

尙齒, 夏后氏貴爵而尙齒, 殷人貴富而尙齒, 周人貴親而尙齒。虞夏殷周, 天下之盛王也, 未有遺年者。年之貴乎天下久矣, 次乎事親也”; 『禮記』, 祭義, “是故朝廷同爵則尙齒。七十杖於朝, 君問則席, 八十不俟朝, 君問則就之, 而弟達乎朝廷矣”; 『禮記』, 祭義, “行, 肩而不併, 不錯則隨, 見老者則車徒辟, 斑白者不以其任行乎道路, 而弟達乎道路矣”; 『禮記』, 祭義, “居鄉以齒, 而老窮不遺, 強不犯弱, 衆不暴寡, 而弟達乎州巷矣”; 『禮記』, 祭義, “古之道, 五十不爲甸徒, 頒禽隆諸長者, 而弟達乎獲狩矣”; 『禮記』, 祭義, “軍旅什伍, 同爵則尙齒, 而弟達乎軍旅矣”

나와 상대의 나이에 상응하는 나의 ‘나이 값하기’나 상대에 대한 ‘나이 값 쳐주기’는 만남에서 행동이나 생각을 하나의 방식으로 지배한다. 나이에 대한 일상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댓글’들을 인용해보자.

빠른 86(년생)인데 85(년생)들이랑 20년 넘게(?) 학교 생활하다가 알바(아르바이트)할 때는 86(년생)에랑 그냥 ‘야자’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내 친구 후배라서 내 친구한테 존대 말 쓰더라. 그 다음부터는 불편해서 얘기 안하고 있다.(괄호 안은 필자)

다 필요 없고 빠른 생년월일(이) 먼저 입학하는 거 없애야 한다. 솔직히 사이에 끼서 진짜 힘든 건 빠른 생년월일이다. 그 고통을 빠른 생년 아닌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한다.

이런 거 떠나서 자기가 생년도 빠르다고 언니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조하는 것들이 더 싫다.

나이에 연결되는 선후배, 존비어 그리고 호칭 등의 문제가 여기에서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편”, “고통”, “싫음”이 나와 남의 ‘나이를 감안하는 만남’의 실제 효과다. 분화된 현대 우리사회에서 나이에서도 분화되는 경향이 있어 1년의 나이 차이도 선배/후배, 언니/동생, 형/아우가 갈리고 나뉘어 그 만남방식도 그에 상응하여 정해진다. 그 내용과 방식에서 크고 작은 편차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식’의 나이 긴장을 일상에서 몸소 느끼고 겪으면서 살아간다. 같은 일터의 만남에서 많은 쪽으로든 적은 쪽으로든 일 년도 안 되는 나이 차이에 민감하여, 서로 반 말하면서 잘 만나고 잘 지내왔던 사람과 “그 다음부터는 불편해서 얘기 안하고 있다”. 나이 혹은 ‘나이 감안’이라는 규범적인 사회적 ‘강요’ 그리고 이것의 내면화로 생긴 스스로의 강요가 만남을 어렵게 한다.¹⁸⁾

18) 나이 예는 어려서부터 하나의 ‘진리’로서 내면화되고 실천 된다. “이 장유유서 때문에 첫째아이의 독재 아닌 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컴퓨터를 해도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장유유서를 외쳐대니, 둘째 아이는 그럴 때마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둘째는 딸아이라서 그런지 욕심이 많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오빠에게도 결코 지는 법이 없는데, 이 장유유서 앞에서만은 꺾음을 못하는 것이었다. ...막 일어난 오빠는 아직도 비몽사몽간이어서 상황 판단을 못

우리사회에서 상대의 나이를 모르면 만남이 ‘뭇’ 이루어지거나 ‘덜’ 이루어진다. 나이크기차이의 계산에 의한 상하서열이 정해진 후 ‘맘 놓고 만나’는 행동이 가능하게 된다. 만남에서 ‘위·아래로서 아래·위를 만나고 대하는 법’이 예로 정해져 있는데, 즉 나이 예가 있는데 나와 상대가 차지하는 위아래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부정이기 때문에 만남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만남에서나 가장 최초로 문제 삼는 화두는 ‘나이’다.”(인터넷)라고도 한다. 지위나 성(性) 등 다른 크기들을 차지하고 본다면, 만남의 상대와 만나는 자의 나이크기가 서로에게 알려지고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의 상하서열이 정해지고 나서야 그에 상응하는 만남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나이에서 위아래서열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만남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피상적으로 되기 쉽다.¹⁹⁾ 그래서 만남상대의 나이크기와 그에 따른 나와 상대 사이의 나이차이가 부정(不定)일 때 나와 상대의 만남은 심지어 부동(不動)으로 까지 된다. 부동은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지도 못하거나 그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부동은 만남을 부동(不凍)으로가 아니라 부동(浮動)으로 만들기 쉽다. 남의 나이를 나이 예에 맞게 ‘감안’하고 배려하여 부동(不凍)의 경직되지 않는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남의 나이를 알아야 하고, 나의 나이를 나이 예에 맞게 감안하고 배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이를 알려야 하기도 한다. 나이 값 을 하고 나이 값을 쳐주기 위해 나와 남의 나이는 알려져야 한다.²⁰⁾ 만남의 상대

하고 있는 터에 갑자기 딸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오빠 손가락을 들고 밥을 한술 떠더니 오빠 입에 쑥 밀어 넣는 것이 아닌가. 얼떨결에 저항도 못하고 밥을 입에 물게 된 큰 아이를 포함한 우리 식구는 하도 어이없어 딸아이의 행동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딸아이는 (장유유서에 따라: 필자) 오빠 입에 밥을 밀어 넣은 후 아무 일이 없는 듯 자리로 와서 우아하게 밥을 뜨는 게 아닌가.”(인터넷)

19) 다만, 만남의 상대가 동년배로 드러날 때 나이는, 즉 나이 같음은 만남을 촉진할 수도 있다. 우리사회에서 같은 교향이나 같은 출신학교 혹은 동성동본일 때처럼 같은 나이에도 호감을 갖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존비어체계 속에서 부담 없이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나이, 같은 직급, 같은 서열에 있는 사람끼리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은 예로부터 또래끼리 어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다. 특히 같은 나이로 이루어진 동갑계, 같은 기수로 이루어진 동기회가 유달리 발달해 왔다. 한국인은 동갑이나 동기를 만났을 때, 사회적 지위나 서열을 떠나서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다.”(권봉영, 『우리사회의 차별과 억압』(지식산업사, 2005), 248쪽). 그러나 이성이 만날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이성 간의 만남에서 나이가 같거나 비슷할 때 ‘남녀칠세부동성’ 등이 생각나서 서로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다 나이에서 위든 아래든, 만남에서 나이가 알려졌어도 나이를 잘못 감안할 때 그것은 만남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 잘못된 나이의 추측에 근거한 혹은 태만이나 고의로 나이를 감안하지 않은 행례(行禮)의 메시지가 갈 때, 상대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 행동을 동반한 메시지가 올 수도 있는데, 이는 서로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서로의 만남을 단절시키기도 한다.²¹⁾

만남을 한정하고 만남의 방식을 규정하는 예의 “어떤”과 “어떻게”는 무엇보다 준비어 등의 언어 실천이나 ‘몸으로 말하기,’²²⁾ 나아가 예물교환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형(남)/선배님, ~하세요!; 철수야, ~해라!” 식의 호칭과 준비어 사용이나 몸의 자세나 굴신 등 ‘몸의 언어’ 말하기는 다시 일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나이가 ‘있는’ 위 사람은, 특히 그가 다른 크기들에서 별다르게 내세울 것이 없을 때, 나이(만) 갖고 아래 사람인 상대를 나이가 갖고 발휘하는 힘으로 ‘누르려’ 한다. 아래 사람은 아래 사람으로서 위 사람을 위 사람으로 그리고 위 사람은 위 사람으로서 아래 사람을 아래 사람으로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나이 예에서 서로 다른 나이가 서로 같이 만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다른 크기들에서 서로 대동소

- 20) “일본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말이 상당히 자유스럽지만 한국은 한 살이라도 연장자면 높임말이 필수이며, 말뿐 아니라 행동에도 규율이 있다. 한국인끼리 서로의 나이를 모르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코리안 위크스(지)/정란희(역), 『한국 vs 일본』(예담, 2002), 187쪽.
- 21) “보통보다 많은 나이로 입학한 후배들이 나이 어린 선배들의 예의 없는 행동에 화를 내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즉 나이 어린 선배가 나이 많은 후배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나이를 둘러싼 갈등이란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나는 참 신기했다. 대책이 마련되었고 발표가 있었다. <앞으로 나이와 학년이 위인 학우에게는 ‘선배님’이라 부르고 나이가 어린데 학년이 위인 학우에게는 ‘선배’라고 부를 것. 나이가 많은데 학년이 아래인 학우에게는 ‘후배님’이라 하고 나이와 학년이 아래인 학우에게는 ‘후배’라고만 부를 것.> 이것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일본학), 《경향신문》, 2006년 9월 8일자.
- 22) 몸의 외양과 행위인 몸의 언어는 Goffman이 말하는 “의복, 태도, 동작과 위치, 소리의 크기, 손짓과 인사와 같은 육체적 제스처, 얼굴 표정 및 기타 광범위한 감정표현”(1963, 33) 등을 가리키는 “몸의 관용구”라 할 수 있다.(Shilling, 2000년, 125쪽에서 재인용) 엘리야스의 “문명화된 몸,” 호쉬차일드의 “감정노동,”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나 “육체자본” 혹은 푸코의 “몸과 그것에 행사되는 권력의 영향” 등 몸의 언어와 사회에 대해서는 Ch. 윌링/임인숙(역), 『몸의 사회학』(나남출판, 2000) 참조.

이할 때, 나이에서 위인 사람은 나이 적은 상대에게 말을 ‘낮추기’가 쉽고, 말 낮추기는 명령하기, 심부름시키기 혹은 입법자 되기로 자연스레 이어지기 쉽다. 대접 받기는 나이 적은 상대로부터 ‘위 자리’ 혹은 ‘앞자리’에 앉혀지거나 세워지는 것인데, 이 자리는 권력행사의 한 근거가 된다. 반대로 나이에서 적은 사람 그래서 아래인 사람은 나이 많은 상대에게 말을 ‘높여야’ 하고, 언어에서 존대는 몸과 마음의 외적 내적 공손한 태도나 자율적 타율적 복종으로 자연스레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준비어 실천의 언어 행위와 기타 나이 예에 맞는 ‘몸의 언어’나 예물교환 등은 ‘수직주의적’ 사회화 질서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이 예에 맞게 ‘나이를 감안하는’ 만남은 기본적으로 ‘수직주의적’ 내지는 ‘중심주의적’ 만남으로 위아래 사이의 만남이다.²³⁾ 나이의 위아래 질서는 다른 영역들에서의 위아래 혹은 ‘전체적 위아래’ 간의 만남을 많이 말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나이의 위아래 질서는 나아가 다른 영역들에서의 위아래 혹은 전체적 위아래 간의 만남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²⁴⁾ 그런데 아래 사람(들)이 위 사람의 나이 값을—예가 하라는 대로 그리고 위 사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하라는 대로—다 지불해 주면 아래 사람들 자신의 지위나 권리가 불안해지고 불리해지기 쉽다. 그리고 다 지불해주지 않아도 될 다른 여지들도 있다. 나이크기에서 아래지만 다른 크기(들)에서는 위일 때, 만남의 장소가 변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나이 값을 때

- 23) 참고: “이 장유유서의 폐해는 그것이 그냥 순서를 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순서가 정해지면 아래 사람은 윗사람에게 공경해야 되며 존대 말을 써야 되며 어디서 만나든지 길을 비켜드려야 되며 공손히 인사드려야 됩니다. 더구나 윗사람이 하는 말을 꼼꼼이 생각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을 합리적 이치에 따라서 따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무조건 윗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 적고 마음에 새기며 암기할 것이지, 윗사람의 말씀을 두고 틀렸다는니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느니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장유유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그 순서를 거꾸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경직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토양이 벌써 이 장유유서의 순서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인터뷰)
- 24) 참고: “예의 요소가 섞여 있는 과시/무시의 현실 예문화 질서는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구별 짓기’를 통하여 이들을 수직화하고(vertikalisieren) ‘위아래’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하나의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거나 하나의 지배관계를 벗어나려 함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지배관계를 벗어나려 함은 지배관계 자체를 해체하고 벗어나려 함이러기보다 자신이 위가 되어 자신이 아래 되던 지배관계를 벗어나는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배관계를 벗어나기’는 곧 ‘지배관계에 빠지기’ 내지 ‘지배관계를 추구하기’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지배관계 속에서는 ‘위아래’만 있을 수 있고 ‘위아래’만 있어야 하고 ‘위아래’만 있어야 하는 소위된 예문화 질서가 말해질 수 있다.” 이하에, 『예, 과시, 무시: 일상예문화 속의 권력전략』, 『동양철학연구』, 제49집(2007), 389쪽.

길 때 등에서 그런 여지들이 얘기될 수 있다. 나이크기 내적인 갈등과 함께 이런 여지들이 ‘나이 전략’의 문제로 이어진다.

III. 경계선(境界線)의 경계(警戒)

우리사회에서 나이는 서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를 나누고 경계선을 만들어 낸다. 나이차이가 만들어내는 경계선은 그 만남을 하나의 방식으로 가르면서 있고 이으면서 가르다. 이런 경계선에 근거한 만남의 내용과 방식이 나이 예다. 경계선과 나이 예에서 크든 작든,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의 방식으로 늘 대립과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²⁵⁾ 경계선과 예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나눔/나눔과 대립, 갈등과 충돌, 싸움의 산물이다. 나이크기 내적인 갈림과 갈등, 나이크기와 나이 밖의 다른 크기들 사이의 갈림과 갈등 그리고 만남의 장소/환경 등이 하나의 경계선을 만들어 내고 그 관리를 요청한다. 그런데 나이가 늘 노출되어지고 나이 대하는 법이 객관적으로 어디서나 고정되어 있고 다른 크기들과 혹은 다른 장소와의 대립이 없다면, 하나의 경계선을 긋고 트고 잇는 나이의 전략은 얘기될 수 없을 것이다. 나이를 보이고 감추며 늘이고 줄일 수 있는 가능성과 나이크기 내외에서의 여러 크기들의 대립, ‘희미한’ 나이의 자(尺), 만남의 장소 등이 나이 전략의 근거가 된다. 이런 전략들의 목적은 이를 통해 결국 하나의 방식으로 상대의 ‘위가 되기’나 상대의 ‘아래가 안 되기’를 통해 자신의 힘이나 이해를 일정한 방식으로 챙기고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사람의 경계선

나이의 예가 생긴 후 나이 예를 지키는 것도 벗어나는 것도 모두, 일반적으로

25) 참고: “며칠 전에 한국인은 나이차가 크면 서로 친구가 될 수도 없다고 비판하는 어느 외국인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죠. 확실히 장유유서, 나이 따지는 위계서열의 문화가 계속 존재하는 한, 좀 나이차 있는 친구를 사귀기가 정말 어려운 사회인 것 같습니다. 10대 소년과 60대 할아버지가 뜻과 관심사만 서로 맞으면 (예를 들어, 이 게시판의 단골소재인 진프라 취미 같은 것으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인터넷)

말해, 우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색(語塞)하게 한다. ‘많이 들어야’ 하고 ‘많이 해주어야’ 하는 아래로서 더 그렇다. 일상의 만남에서 상대를 나이에서 ‘무리(無理) 없이’ 만나기 위해 우선 상대의 나이를 알아야 하는 것을 위에서 보았다. 다른 크기들의 알기와 함께 나이크기 알기는 만남을 위한 위아래서열 정하기 내지 위아래 간 경계선 곳기로 연결되고, 이것이 정해지고 갈라질 때 비로소 이에 상응해서 ‘서열대로 대우해주고 대우받는다’ 무리 없는 만남이 일단 가능해진다. 이 무리 없음이 바로 무리 있음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위아래 혹은 상하는 ‘전체적 상하’를 말한다. 한 행례자(行禮者)는 그의 예 상대에 대해 모든 개별적인 관점 내지 크기—특히 사회적 지위, 나이, 성(性), 내적 크기(지식, 덕) 등—에서 위이거나 아래인 것은 아니다. 만남이 ‘문제’ 없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예 상대에 대한 그의 ‘전체적 상’으로서나 ‘전체적 하’로서의 상대적 자리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 상대에 대한 그의 전체적 상으로서나 전체적 하로서의 자리가 결정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각각의 관점에서 상하가 쉽게 정해진다 해도 위아래를 전체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하나의 개별적인 관점—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위이고 다른 개별적인 세 관점들에서 (상대적인) 아래로 구성된 자리라 해도, 전체적으로는 위의 자리를 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례자의 예 상대, 즉 수례자(受禮者)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 지위는 예 이론과 실천의 주관적 조건들뿐만 아니라, 행례 환경인 객관적 조건들에 의해서도 조건 지워진다. 위아래 서열의 사정(査定)이 만나는 이들의 사정(私情)과 사리(私利)에 얽매어 일반적으로 진행될 때, 상대는 사리(事理)가 아니고 예가 아니라고 하며 쉽게 제동을 건다.

1) 나이크기와 나이크기 사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선 다른 크기들은 무시하고 나이크기 안에서만 머문다. 이는 논의가 나이크기들 사이에서 생기는 경계선 곳기와 관리의 문제에 머문다는 뜻이다. 우리는 나이에 민감한 만큼 만남에서 상대의 나이를 알고 고 하고, 알려고 하는 만큼 자기 나이를 숨기려 하기도 한다. 상대는 자신의 민감한 나이를 순순히 고백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상대도 자신의 나이를 감추는 일이 부담스럽게 된다. 또 우리는 만남에서 상대의 나이를 알려고 하고 자기의 나

이를 숨기려 하지만, 때론 자기의 나이를 알리려 한다.²⁶⁾ 자기의 나이를 숨기거나 알리는 일과 만남 상대의 나이를 알아내는 등의 일 자체가 부담 가는 일이다.

사람들은 나이에 민감한 만큼 자신과 남의 나이를 함묵하거나 묻지 못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도 한다. 나이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때, ‘인조나이’가 얘기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인조나이는 안전하고 때에 따라 명예로운 것이기도 하다. 속임의 도덕적 부담도 없는 이런 종류의 인조나이는 주로 일정한 상품의 구매력이나 스포츠 등을 통하여 속으로 혹은 겉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는 나이이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혹은 운동 등이 그 수단일 수 있다.²⁷⁾ 만나는 상대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경우 자신의 나이를 잘 아는 자신의 친구나 동기 혹은 가까운 친척 등을 상대가 만날 때 불안해진다. 나이를 속이기도 쉽지 않지만, 속임이 탈로 났을 때 속인 사람이나 속은 사람 모두가 민감해지고 난감해질 수 있고 그 만남은 중단될 수 있어 이런 위험이 속임에서 미리 감안 되어야 한다. 한 실화에 의하면 나이에서 위아래가 고의로 바뀌고 바뀐 위아래에 ‘잘’ 맞게 ‘잘못’ 만난 것이 후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는데, 아래였던, 아래(역)를 행했던 사람은 ‘부당’하게 아래로서 위를 대해왔던 것을 ‘변상’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또 내부적으로는 속인 사람의 양심이 속인 사람 자신의 행위를 계속 문제 삼을 수 있다.

여타 크기들이 서로 같아 나이크기만이 위아래 서열에서 ‘감안’의 대상이 될 때, 나이크기들이 알려지고 정해졌어도 그들 간에 나이 전략이 얘기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상대에 순수한 혹은 ‘불순한’ 호감이 갈 때 상대의 나이를 알고 그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겠지만, 상대가 여러 이유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일 때, 자신이 상대 연장자에게 말을 낮추라고 해도 낮추지 않고, 자신이 연장자로서 친근의 제스처로 말을 낮추더라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다. 또—다른 크기는 같을 때—나이에서의 (드러난 혹은 안 드러난) 위아래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아직 없어 준비어가 결정되지 않은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서 말을 높였다 낮췄다를 반복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상대가 존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면 그때부터

26) 그런데 자신의 나이를 알려도 상대의 나이를 알지 못한다면 상대적인 나이효과, 나이 예는 무효로 된다.

27) 요즘 나이 해방의 상품들이 인기다. 머리를 검게 물들이는 염색도 포함된다. 검은 액이 묻은 솔로 매일 흰 머리에 검은 칠을 할 수 있는 화장품도 있다.

는 상대에게 하대만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자리를 위 자리로 확보하려 한다.²⁸⁾ 또 나이 전략에는 통용되는 나이 법칙을 뒤집어 나이 많아도 먼저 인사하는 전략도 있는데 그 목표는 상대와 거리를 두기이거나 상대에게 예법을 한 수 가르치기이거나 상대와 거리 없애기 혹은 나이 예의 초월이다. 그런 인사가 상대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통상의 예법에서 어긋난다는 것과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거나 정해진 목표가 자신의 관심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나이를 보이고 감추고, 늘이고 줄이는 등의 나이 전략들은 모두 힘 관계에서 우위 내지 ‘위 자리’를 차지하기의 전략과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위이기 혹은 적어도 조금만 아래이기 ‘유리’하다. 그리하여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혹은 상대로부터 대접 받고 상대를 하나의 방식으로 누르고 내리기 위해 혹은 아래가 되어 상대를 대접하고 위로 대하거나 ‘모셔야’ 하는 아래이기의 부담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위 혹은 적어도 조금만 아래이려 한다. 따라서 우위 혹은 위 자리를 점하기 위해 혹은 상대로부터 대접 받고 상대를 하나의 방식으로 누르고 내리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 나이가 감추어지고 속여지기도 하고 일부러 그대로 드러내 보여 지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는 일자리가 아닌 일상의 영역에서 보통은 일정한 내용과 방식의 ‘좋은 대접’을 약속 받는다. 그 대접은 우대(優待)요 우대는 자리에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앞이나 위, 먼저에 놓이기’이고 자원에서 명예에서 권력에서는 ‘더 많이’인 하나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²⁹⁾ 이렇게 나이의 예는 일반적

28) 이 전략의 장점 중 하나는 올린 것이 소원(疎遠)의 표시라고 상대가 문제 삼으면 내린 것을 가리키고, 내린 것이 무시(無視)의 표시라고 문제 삼으면 올린 것을 가리킬 수 있는 여지/공간이 생긴다는 데에 있다.

29) 자신이 “앞이나 위, 먼저에 놓이기”의 방법으로 노자는 자신을 뒤나 아래에 놓기의 방법을 말한다. 『老子翼』 66장, “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是以欲上人以其言下之 欲先人以其身後之 是以處上而人不重 處前而人不能害 是以天下樂推而不厭 以其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無欲을 주장하지만 이렇게 추구할 만한 자리인 “위” 혹은 “앞”에 존재할(“上人”/“處上,” “先人”/“處前”) “수 있기”(能爲) 위한 전제 조건이 즉 (자신을) “아래에 두기/놓기”(“下之”) 혹은 “뒤에 두기/놓기”(“後之”)라 한다. 다시 말해 百谷의 “王”이 될 수 있는 “근거”(所以)가 자신을 남의 “아래”나 “뒤”에 두는 것이다. 강과 바다는 百谷보다 아래에 있기에 百谷을 모을 수 있다. 혹은 아래에 있지만 百谷은 모두 그로 흘러들어 간다. 江海는 실제로 百谷의 아래에 있지만, 가까이 추대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여드는’(歸, 來, 服…) 百谷을 兼하고 御할 수 있는 王이므로 동시에 ‘上百谷’ 혹은 ‘處百谷之上’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아래이자 위’ 혹은 ‘아래이므로 위일 수 있음’의 그것이다.

으로 위를 ‘더 감안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만나는 자들의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경우—나이가 상대보다 더 많아 자리가 ‘위’일 때, 이 ‘위’ 자리들은 ‘나이의 예’를 챙기고 관리하려는 경향을 띤다.³⁰⁾ 마치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빚에 대해 더 말할듯이, 나이 예를 ‘챙겨 주는’ 쪽보다 ‘챙겨 받는’ 쪽이 나이 예에 대해 늘 더 말하고 더 챙기려 한다.

그러나 ‘위가 아래를 사랑(해야)하고 아래는 위에 따른다 혹은 따라야 한다’는 예의 만남 혹은 만남의 예의 기본 논리를 감안할 때, 나이에서 위인 사람에게도 그의 아래를 하나의 방식으로 ‘배려’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따라다닌다. 어떤 때는 이 부담이 특권보다 더 클 때도 있다. 이럴 땐 이런 부담이 싫어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자신의 나이가 위이거나 위일 것 같을 때 나이 드러내는 것이나 나이대접 받기를 꺼리기도 한다. 반대로, 나이 적은 사람은 이런 기회를 찾고 챙기기 위해 기꺼이 아래이려고도 할 수 있다.³¹⁾ 그런데 나이 차가 작을수록 나이 전략은 긴장을 더 띠기도 한다. 작은 나이 차이로 상하가 결정되고 그리하여 상하의 행동 방식과 만남방식이 나이에 의해 결정될 때, 아래는 이를 나이 차가 많을 때보다 더 견디기 어려워하고 반대로 적은 나이 차이의 위는 그만큼 강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

2) 나이크기와 다른 크기 사이

앞에서는 나이 내적으로 하나의 나이크기와 또 하나의 나이크기 사이의 갈등을 다루었다. 따라서 나이크기 이외의 크기들은 고정되었다. 아래에서는 나이크기를 고정하고 이에 대립하는 다른 크기가 나이크기와 ‘비례/상응’하지 않을 때의 갈등을 다루기로 한다.³²⁾

30) 필자는 약 한 시간 전에 전통차 내에서 어떤 60대 정도의 연장자가 40대 정도의 사람에게 신문으로 자신을 가리고 노약자석에 앉아 (아래 사람으로서) 나이 예를 챙길 줄 모른다고 ‘설교’하면서 나이 예와 그에 따르는 권리를 (위 사람으로서) 챙기는 것을 보았다.

31) 참고: “나이 많다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라는 법이 없건만, 쉬운 예로 밥을 같이 먹자해서 먹는 경우 뒷사람이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심리적으로 뒷사람은 배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 주어야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기분이 상하게 되고, 아랫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싶어도 뒷사람이 기분상할까 하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두게 된다.”(인터넷)

32) 한 인터넷 누리꾼은 “위아래가 바뀌었을 때의 속 쓰림”을 말하면서 “나이 어린 상사에게 깍듯이 존칭을 붙여야 된다면...또 아랫사람이 삼계탕 값을 서너 번이나 내어 주었다면...나이 어린 손위

만남에서 나이크기의 위아래 질서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해체하거나 반복시키는 크기들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자리에서 ‘전체적 상하’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크기만이 아니다. 지위의 크기나 ‘내적 크기’(지성과 덕성) 그리고 성(性)의 크기나 빈부의 크기 등이 ‘전체적 상하’를 함께 결정한다. 그 중에서 나이의 가장 강력한 적수는 지위다. 나이질서는 특히 지위와 충돌할 때 무력해지기 쉽다. 그리하여 같은 직장 내에서 나이 질서와 직급의 질서에서 위아래가 비례하지 않을 때는, 나이에서 ‘큰 사람’이 직급에서 ‘큰 사람’에게 “더러워서 못해떡겠네!”라고 하면서 그동안 못 챙겼던 자신의 나이 값을 한꺼번에 챙기고 나서, 자기 나이를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계속 챙기기 위해서—특히 직업 크기가 안정적이지 못할수록—직급에서 큰/높은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해체하고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또 “어려서부터 장유유서를...잘 몸에 익혔”던 한 사무실 하급 여직원이 “커피를 연장자 순으로 경비아저씨와 청소아주머니께 드리고 그제 서야 소장님 순으로 드렸”다. 그리고 “사무실 연락망을 만들라는 말에...맨 위에 제일 연장자이신 경비아저씨부터 적어 만들었”던 이 여직원은 “사무실에서 그래도 윗분이신 소장님부터 써야하나 하고 고민한 게 아니라 보기 편하게 가나다순으로 적을까 연장자 순으로 적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고 하면서 나이크기만 감안한 대우방식을 반성하기도 한다.(인터넷)

나이 질서가 학교나 회사·군대 등에서의 입학·입사·입대 순서에 의한 선후배의 예에 ‘정상적으로 비례’하지 못하여 나이 적은 선배와 나이 많은 후배 혹은 동년의 선후배 혹은 이년(異年)의 동급생/동기(同期) 사이에, 만날 때 알력이나 싸움이 암암리에 혹은 가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나이 적은 혹은 같은 선배에게 나이 많은 혹은 같은 후배가 선배와는 ‘달리’ 말을 올리지 않고 선배와 ‘같이’ 말을 내린다고 언어맞을 때가 그런 경우다. 한 살 어린 선배가 한 살 많은 일 년 후배를 한 살 많은 선배가 대하듯이 대하여 후배가 자신의 나이 값이 일반적으로 무화된 것에 대해 심히 불쾌하고 불안해질 때, 드러나든 아니든 알력과 긴장이 발생하게 된다. 이 후배가 선배배 기준이 우선이라는 ‘선배의 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냉정’하게 ‘같이’ 말을 내릴 때, 이 함묵되어온 알력은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이때 선배가 속으로 ‘나의 하대가 잘못 없으리라고 내가 잘못 계산했나보다’하고 다

동서에게 깍듯하게 ‘형님’이라는 칭호와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면...그 속들이 아리고 쓰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인터넷)

시 높임말을 사용할 때 후배도 역시 높임말을 쓴다면, 선배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하고 다시 말을 내릴 수 있다. 이때 후배도 역시 말을 내린다면 선배는 ‘아, 내가 정말 잘못 계산했나보구나’하고 위가 되려는 욕심을 포기할 때, 이는 나이의 예와 선후배의 예가 팽팽히 대립하고 충돌하는 하나의 방식이다.³³⁾

빈부의 한 크기로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크기도 나이크기뿐만 아니라 지위, 내적 크기 등 제 크기들을 해체하려 하고 해체할 수도 있다. 작은 차 탄 사람은 그의 ‘사람 크기’도 작은 차에 ‘휩쓸려 함께 작아지고,’ 큰 차 탄 사람은 그의 크기가 큰 차에 덩달아 ‘휩쓸려 함께 커진다.’ 후자는 ‘큰 것’을 끼고/타고/업고 그 물건과 함께 그 물건처럼 ‘커지(려)는’ 논리로 나간다.³⁴⁾ 휩쓸려 함께 커지면서, 무시당하지 않는 등 자신의 관심과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걸치레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속은 ‘작아도’ 겉은 ‘크게’ 보이려 한다. 물질적 크기에서 큰 사람은 쉽게 위 사람으로 되고 물질적 크기는 나이 예를 쉽게 해체할 수도 있다.³⁵⁾

33) 다음은 이런 갈등을 잘 보여주는 일상의식이다.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서로 불만이 생긴다. 나는 1학년이지만 80년생인데, 85년생 2학년한테 인사할 필요가 없지. 나는 81년생인데, 82년생 조교가 나한테 반말을 해. 난 1학년이지만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인데 2학년 애들이 건방지게 맞먹어. 저 교수는 나와 비슷한 나이야. 생기도 어리게 생기고, 과제는 왜 이리 많이 내주지. 나이가 많은 게 최고라는 장유유서의 습관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이는 같은 직급에서 장유유서를 따지는 것이지, 무조건 나이 많은 게 우선은 아니다. 아무리 늙었다 하더라도 1학년은 2학년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 나이 50먹은 대학원 교수에게 60먹은 학생이 깍듯하게 인사한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학생은 조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같은 조직의 수직관계 이외의 경우에는 서로 인사를 하면 된다. 이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다.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 아버지 어깨를 두드리는 서양 아들. 친하다는 표현이라지만 한국인의 예의로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이다. 국제화시대라 세계화시대라 해서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고, 선배도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우선 인사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국민이란 걸 자랑스럽게 여기자.”(인터뷰)

34) 이하배, 앞의 논문(2004), 236쪽.

35) 참고: “우리사회에서 ‘물질 크기’의 나뉘미 ‘인간 크기’를 나눈다. 한 사람의 물질크기가 그 사람의 인간크기를 결정한다. 그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서 큰 사람 혹은 물질을 크게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쉽게 ‘대인’/‘큰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된다. 정신, 심미, 윤리, 정서 등 인간성, 인간됨, 인품, 인격의 여타 크기들은 인간크기에서 ‘그냥’ 쉽게 제외되고 간과된다. 다른 영역에서 아무리 크거나 클 수 있어도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서 적은 ‘작은 사람’은 외적 크기에서 뿐만 아니라 내적 크기에서도 ‘그냥’ 쉽게 ‘소인’/‘작은 사람,’ ‘못난 사람,’ 심지어 ‘못된 사람’으로까지 된다.” 이하배, 앞의 논문(2007), 384쪽.

또, 성(性)도 물론 나이의 질서를 하나의 방식으로 반복할 수 있다. 나이 적은 남편이 나이 많은 아내에게 말을 낮추고 나이 많은 아내가 나이 적은 남편에게 말을 높일 때도 있고, 나이가 같아도 남편만 아내에게 말을 낮추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결혼 후의 ‘아줌마’들, 특히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나이 차이에 상대적으로 무디어지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한 남성 택시 운전자가 한 여성운전자한테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왜 차를 몰고나와 길을 막고 야단이야?”라고 하면서 나이 예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것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성 차별의 관습에도 근거한다. 또, 이성 간의 만남에서 나이 차 많은 때보다 적은 이성을 대할 때의 만남은 그 만큼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리고 지식과 덕, 즉 ‘내적 크기’도 일정한 조건 속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나이를 뛰어넘으려 한다. 젊은 여자 점쟁이가 점치러 온 사람들의 나이와 성(性)을 뛰어넘어 만나려 할 때가 하나의 예다. 이 밖에 친족체계에서의 항렬(行列)도 하나의 방식으로 나이 예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해체하기도 한다. 나이 질서를 흔들고 해체하려는 이런 힘들은 이미 나이의 힘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들은 저항하는 나이의 힘과 다양한 방식의 긴장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2. 장소의 경계선

위에서는 장소와 관계없이 사람크기, 만남의 주체크기 내에서 나이 안팎의 두 크기가 만나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을 물었다. 그런데 만남의 장소나 영역 혹은 집단이 바뀔 때 따라 나이를 포함한 여러 크기들을 감안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바뀔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만남에서 많은 나이와 적은 나이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지고 관리되기도 하고 또 나이크기와 다른 크기들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만남의 장소와 영역들 혹은 집단들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이 만남의 방식을 가를 수 있다. 만나는 주체들의 나이크기가 정해졌다 해도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만나는 방식이 바뀌고 그에 따라 나이의 예도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나이 질서가 지위 질서에 늘 놓리는 것은 아니다. 나이와 지위의 대립은 어떤 만남 환경이냐에 따라 다시 변할 수 있다.

한 집단의 안·밖을 경계로 하여 나이를 재는 자가 바뀔 수 있는데 이는 만남

의 방식에 하나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상하 서열의 결정에서 한 조직의 안에서는 지위에 무게가 실리지만, 밖에서는 나이에 무게가 실리게 되어 상하 서열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한 조직의 질서가 그 조직 밖에까지 그대로 쉽게 연장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한 조직의 안에서 밖으로 만남의 장이 변할 때, 동일한 사람들의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에서는 작지만 지위에서 ‘큰 사람’이 나이에서 ‘큰 사람’에게 “회사 밖이니까 말 놓으세요!”라고도 한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크게’ 혹은 높게 평가받는 검사의 지위는 사법의 공간 안에서—사회에서 높게 혹은 낮게 평가받는—피의자한테 쉽게 하대를 하게 한다. 사법 공간 밖의 피의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지위도 사법의 공간 안에서 해체되기가 쉽다. 취조실 안에서는 나이에서 위지만 지위에서 아래인, 아래로 된 사람들은 그래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나이는 거의 무력해진다. 그리 머지않은 옛날에는 의사들도 병원 내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자신들의 자리이게끔 만들어주는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와 비슷했었다. 그렇지만 사법공간이나 병원 밖의 지위가 ‘유난히 높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라도 나이가 쉽게 해체 당하지 않고 예외자로 될 수 있다.

군대라는 집단 내에서도 나이 적은 상급자가 나이 많은 하급자에게—습지는 않지만—말을 ‘논다’. 그 안에서 나이크기와 계급크기 사이에 대립이 보이게 안보이게 일어난다. 또 군대 밖의 ‘사제나이’가 군대의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려 해도 안 되듯이, 너무 강화된 군대식 나이(의 계산과 감안 논리)가 군대의 경계선을 넘어 나오려 해도 안 된다. 그러나 보통은 군대 안에선 나이에서 크지만 계급에서 작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다가, 만남의 공간이 바뀌어 군대 밖이 되었을 때 공간과 상황이 바뀐 것도 있고 군대 ‘경계선을 연장’하여 계속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다가, 이내 ‘변화된 새로운 장에 맞는 나이(예)를 다시 감안’하게 된다.

도로 위의 운전자들끼리의 ‘불쾌한 만남’에서 그들이 서로 ‘서슴없이’ 나이 예를 무시하고 반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가 불쾌한 반격을 (많이) 막아낼 수 있는 경계선을 갖춘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난 운전자가 자기의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자동차의 두 경계선 중 하나를 넘어 상대의 자동차로 가서 ‘자동차(의 경계) 없이’ 만나려 해도 만나기가 어렵게 되는 이유는, 상대가 자신의 자동차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그 운전자의 만나려는 욕심을 무시하고 쉽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열고 닫고 가고 설 수 있는 물질적 장치인 자동차가

경계가 되어 두 사람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이의 예는 비교적 쉽게 힘을 잃을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 택시 운전자가 한 여성운전자에게 나이 예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성 차별 관습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자동차가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것에도 근거한다.

나이를 더 혹은 덜 감안하고 더 혹은 덜 민감한 만남의 환경 내지 영역, 집단, 직업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직업의 영역이 육체노동에 가까울수록, 일자리가 불안하고 수입이 적을수록, 나이의 차이는—예 일반에서 그렇듯이 일반적으로—덜 엄격하게 따져진다. 육체노동의 현장에서 웬만한 나이 차이는 극복되고 노동자들은 쉽게 서로 반말한다. 여기에서 나이질서를 따지기도 어렵고 챙길 필요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³⁶⁾ 또한 술자리에서도 이성의 상실로든 혹은 그런 척하기에서든 동일한 만남주체 간의 나이질서는 쉽게—그러나 일정한 긴장 속에서—와해될 수 있다.

장소의 범위를 많이 넓혀보자. 내가 지난 80년 대 중반 독일에 처음 가서 나이에서 위이고 지위에서도 위인 독일선생님과 만날 때, 만나는 자와 만나지는 자에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국에서와는 판연히 다르게 반말(혹은 ‘평말’?)을 하고 나의 의견을 나이에 놀리지 않고 자유롭게 펼 수 있고 시선도 부담 없이 상대의 눈에 보낼 수 있고 몸의 자세나 스킨십에서 열려 있고 물건도 한 손으로 줄 수 있고 이름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매우 불안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었다.

이렇게 한 장소의 나이 질서가 다른 장소로 쉽게 연장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동질적 공간의 경계선 밖에서는 그 안에서는 유효했던 상하서열의 교정에 ‘신경 써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집단의 안과 밖의 사이를 끊고 있는 물질적 경계선은 사람만남에서 서로가 서로의 나이를 감안하고 배려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한 집단 혹은 한 개인이 만들어내는 경계선 내지 ‘문(門)’은 단속(斷續)되고 개폐되면서 충돌과 타협 속에 혹은 거리조절을 통한 섞임과 안 섞임 속에 그 정체성은 단속(團束)되어간다.³⁷⁾

36) 외적 크기가 작을수록 챙길 예는 적어지거나 심지어 없다고까지 한다. 물론 좁은 의미의 예지만 예는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禮記』, 曲禮上,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

37) 『禮記』를 보면 남녀 사이 장유 사이 등을 엄격하게 가르고 관리한다. 예를 들어 남녀는 “대답”방식이나 “인사”방식을 달리하고 “자리”를 달리 하고 “밥”을 따로 먹고 “배움”을 달리하여야 한다. 『禮記』, 內則, “子能食食, 教以右手. 能言, 男唯, 女俞. …七年, 男女不同席, 不共食. …凡男拜, 尚左

3. 경계선의 재편: 사이버 공간의 나이

사이버 공간의 출현과 발전으로 현대 우리사회에서 만남의 기술적 조건은 가히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식정보 시대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을 익명성에 매개되어 나이가 ‘처리’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자. 익명(匿名)이란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것을 뜻하지만, 익명은 익명(匿名), 익면(匿名), 익성(匿名), 익년(匿名), 익위(匿名: 지위 감추기)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단어다.

가상공간 속의 만남에서는 만남상대를 직접 볼 수 없고 모니터 속에서 상대에 의해 제공된 문자나 영상 등의 시각적 청각적 디지털 기호들만을 통해 만나며, 만나는 자들은 서로에게 나이 등 서로의 정체성을 쉽게 조작하고 감출 수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자신을 쉽게 감출 수 있는 만큼 자신을 쉽게 드러내려 하고 또 쉽게 드러낼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누리꾼들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려 하기 위해 자신을 감추려 한다. 자신이 보이는 현실 공간의 만남에서 보일 수 없는 자신의 태도나 생각, 감정들을 자신이 안 보이는 사이버 공간 속의 만남에서는 별 ‘거리낌 없이’ 보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을 숨겨 가면서 보이는 과정이 현실 공간에서보다 훨씬 쉽고 그 결과로부터 쉽게 자유로울 수 있다. 이는 감출 수 있으므로 드러낼 수 있다는 논리다. 자신의 정체성이 감추어지니까 자신의 체면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법적 도덕적 책임도 작게 할 수 있다.

사실, 이름이 감추어지는 일, 익명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은주’ 내지 ‘현주’라는 같은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름은 성(性)을 지시하는 것 외에 가상공간에서의 만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짜 나이가 감추어지거나 가짜 나이가 드러내질 때 가상공간에서의 사람만남의 방식은 현실공간에서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나이 감춤 내지 바꾸기는 현실공간에서의 나이 감춤 내지 바꾸기보다 훨씬 용이하므로 나이의 경계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 경계 허물기와 나이 인조가 탄로 났을 때라도 물리적, 법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나이를 쉽게 감출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정체성이 바뀌어도

그 (실제)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 겉만 이름만 바뀌기 때문이다. 혹은 바뀐 ‘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다른 한편—자기 정체성을 ‘감출 수’ 있는 만큼, ‘바꿀 수’ 있는 만큼, 혹은 ‘바뀐 척 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실제로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 나이의 정체성을 ‘감출 수’ 있는 만큼, ‘바꿀 수’ 있는 만큼, 혹은 ‘바뀐 척 할 수’ 있는 만큼 남에 대한 배려는 소홀히 될 수 있고 결국은 만남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³⁸⁾

현실 공간에서의 나이질서가 사이버 공간에서 무력해질 때 현실질서가 초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수도 있지만, 현실의 일정한 상하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는 현실 공간의 나이 질서에 의해 아래일 때의 어려움과 위일 때의 권력을 의식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 나이를 위로 쉽게 조작하면서 위에 군림하려 할 때, 나이질서가 강화되는 경우 등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나이 초월이 만남에서 나이 예법의 결림들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나이의 예법이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나이의 힘을 더 ‘감안하고 챙길’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무너진 경계만이 이야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위에 하나의 새로운 종류의 한층 강화된 나이 경계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IV. 나오는 말

우리사회에서 나이의 문제를 하나의 방식으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이에 다양한 긴장들이 감돌고 있음에도 한국의 인문학에서 나이(예) 문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아왔다. 위에서 나는 우리사회에서 나이가 사람 사이의 만남에 ‘기어뜨는’ 방식을 물었다. 우리사회에서 나이는 만남의 내용과 방식을 강하게 참견하고 결정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나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남을 부담스럽게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나이 예는 우리의 만남을 가르고 만남에 많은 부담을 준다. 여기에 ‘예—사회화’의 유교 전통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 있다.

手. 女子十年不出. 姆教婉婉聽從. 執麻泉, 治絲織, 織紵組紉, 學女事, 以共衣服...凡女拜, 尚右手.”

38) 이하배, 앞의 논문(2004), 239-240쪽 참조.

나이가 인간 사이를 나누고 가른다. 아니, 인간이 나이 사이를 나누고 가른다. 나이를 위아래로 가르면서 상하를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열대로 대우하고 대우 받는 무리 없는 만남’은 다양한 방법과 목적의 권력전략이 끼어드는 것을 허용한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 혹은 덜 따지는 문화를 생각할 때, 나이 차이에 따라 ‘공연(空然)히’ 위아래를 나눈 다음 이들이 서로를 다르게 만나는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고 관리하면서 긴장하고 기분 나빠하며 어려워한다. 이것이 마치 한 사회가 ‘나오는 것’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많이 과장일까? 물론 장유유서의 나이 예에서 기분 좋아 하는 쪽 혹은 기분 좋아 하는 때도 있고 장유유서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방식의 ‘기분 좋기’ 내지 ‘사회통합’이냐에 있다. 그 방식이 ‘수직주의’적인 것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사회적 개인적 여러 부담들이 문제다. 수직주의 혹은 ‘중심주의’와 자유, 자율, 평등, 다원성, 연대, 민주, 합리 등의 가치가 공존하기는 어렵다. 나이질서의 (재)생산이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수직주의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에 간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둘은 서로를 강화한다.

세계의 다른 문화권은 차치하고라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나이 예법이 우리처럼 엄격히 요청되고 지켜지지는 않는다.³⁹⁾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적어도 나이와 관련하여—큰 문제없이 잘 산다. 나이의 예와 그것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파생되는 ‘준비어’ 체계의 이론과 실천은 수직적 ‘예—사회화’의 한 산물이자 동시에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나이 예에서 수직주의도 문제지만, 만남에서 자타의 나이에 상응하는 혹은 못하는 예/비례(非禮)를 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불편, 어색 등 나이에 (과)부하된 다양한 종류와 방식의 긴장은 우리의 만남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나이 예가 해체될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게 될 것이다.

물론, 더불어 사는 삶에서 나이의 배려가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 삶에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그럴 때이다. 그러나 그럴

39) “‘장유유서,’ 즉 연장자를 공경한다는 원칙은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가 되어 있다. 같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경우는 훨씬 강하다. 노인과 젊은이는 물론,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 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장유유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코리안 위크스(지)정관희(역), 앞의 책, 186-187쪽. 한국이 역사적으로 주자 성리학을 강하게 수용한 일이 한국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유교사회에서보다 장유유서의 수직주의적 만남문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한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이라도 나이를 예 내지 윤리도덕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혹은 예 개념으로 접근해도, 위아래의 분리가 아니며 부리고 섬기는 ‘사사(使事)’가 아니며 쓸 데 없는 짐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예’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⁴⁰⁾ ‘새로운 예,’ ‘진정한 예’ 혹은 ‘해방 예’는 나이와 무관하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같은’ 사람으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예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예는 경계선과 필터를 통한 가름과 거름으로 만남을 제동걸기(‘不動’)가 아니라 해방을 통하여 만남을 촉진하는(‘不凍’) 계기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나이의 예’라면, 새로운 나이의 예는 나이를—적어도 장유유서로—‘감안’하지 않는 예가 아닐까?

참고문헌

『老子翼』; 『禮記鄭注』; 『經書』; 『荀子今註今譯』; 『경향신문』.

이하배, 「우리 속담에 나타난 性差別的 社會化: 儒敎的 社會化와의 관련 속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1권 제1호, 2001, 185-207쪽.

이하배, 「權力 속의 禮 혹은 예 속의 권력: 일상 ‘예문화’와 ‘걸치레’적 인간관계」, 『동양철학연구』 38집, 2004, 203-245쪽.

40) 형식적인 예보다 실질적인 인간존중이 중요하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교사를 존경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선생님 앞에서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으로 선생을 존경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더 나빠져서 말도 안 듣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노인이 버스를 탈 때 운전기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버스를 세워놓고 필요하면 내려서 노인이 버스를 오르고 내리는 온갖 편의를 다 봐줍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인을 공경한다는 자랑이 나옵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 미국에 사는 한국노인들 중 80%가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노인이라고 온갖 천대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미국에서는 비록 말이 안통해도 노인이 인간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니깐 그렇습니다. 미국 학생은 선생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반드시 존경할 만한 선생이 한국학교보다 미국학교에 많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학생들은 선생 앞에서 예의가 바릅니다. 선생 뒤에 서도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보답한답시고 마련한 사은회 자리에서 학점불만을 가진 졸업생이 술을 먹고 교수에게 막말을 하며 덤비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인터뷰)

이하배, 「예, 과시, 무시: 일상예문화 속의 권력전략?」, 『동양철학연구』 제49집, 2007, 363~395쪽.
 최봉영, 『우리사회의 차별과 억압』. 서울: 지식산업사, 2005.
 코리안 워크스(저)/정란희(역), 『한국 vs 일본』. 예담, 2002.
 Ch. 쉘링(저)/임인숙(역),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2000.

Althusser, Louis, *Ideologie und ideologische Staatsapparate*. Hamburg, Berlin(W), 1977.
 Bochmann, Klaus und Haug, Wolfgang, F.(Hrsg.), *Antonio Gramsci: Gefängnis-Hefte*. Hamburg, 1991ff.
 Haug, Wolfgang F., “Ideologische Mächte und die antagonistische Reklamation des Gemeinwesens, Zur Weiterentwicklung der Umrissse.” W. F. Haug, *Pluraler Marxismus*. Bd. II, Berlin (W), 1987.
 Haug, Wolfgang F., “Der Begriff der Selbstverwaltung im Marxismus und die Aufgaben der Intellektuellen.” W. F. Haug, *Pluraler Marxismus*. Bd. I, Berlin(W), 1985.
 Koivisto, Juha und Pietilä, Veikko, “W. F. Haugs Theorie im Vergleich.” W. F. Haug, *Elemente einer Theorie des Ideologischen*, Berlin(W), 1993.

되고 나이 예에 (과)부하된 긴장은 우리의 만남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굳이 ‘나이의 예’라면, 이는 나이를 ‘감안’하지 않는 예가 될 것이다. 이런 예는 위 아래의 분리, 부리고 섬기는 ‘사사(使事)’나 긴장이 아니라 나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예,’ ‘해방의 예’라 할 것이다.

- 투고일 : 2007. 10. 15. ● 심사완료일 : 2007. 11. 28.
- 주제어(keyword) : 예문화(Li(禮)-Culture), 나이 예(Age-Li(禮)), 경계선의 경계(to watch Border), 권력전략(Power Strategies), 해방의 예(Li(禮) of Liberation)

국문 요약

우리사회에서 나이는 만남의 내용과 방식을 강하게 참견하면서 우리들을 긴장하고 고민하게 한다. 인간은 나이를 나누고 나이는 인간을 나눈다. 나이가 만들어내는 경계선들은 만남을 하나의 방식으로 가르면서 있고 이으면서 가르친다. 이런 경계선들에 근거한 만남의 내용과 방식이 나이의 예다. 나이크기 내적인 갈림과 갈등, 나이크기와 나이 밖의 다른 크기들 사이의 갈림과 갈등 그리고 만남의 장소 등이 하나의 경계선을 만들어 내고 그 관리를 요청한다. 경계선들을 나누고 경계선들에 나뉘는 나이의 예는 다양한 방법과 목적의 권력전략이 끼어드는 것을 허용한다. 여타 크기들에서 서로 대동소이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은 ‘위 자리’ 혹은 ‘앞자리’에 앉혀지면서 나이 적은 상대에게 말을 ‘낮추기’가 쉽고, 말에서 낮추기는 낮추는 자 자신이 명령하기 내지 심부름시키기 혹은 입법자 되기로 쉽게 이어진다. 반대로 언어에서 존대하는 나이 적은 이는 몸과 마음의 공손한 태도나 자율적 타율적 복종으로 이어지기 쉽다. 나이의 예 실천은 ‘수직주의적’ 사회화 질서의 결과이자 원인이